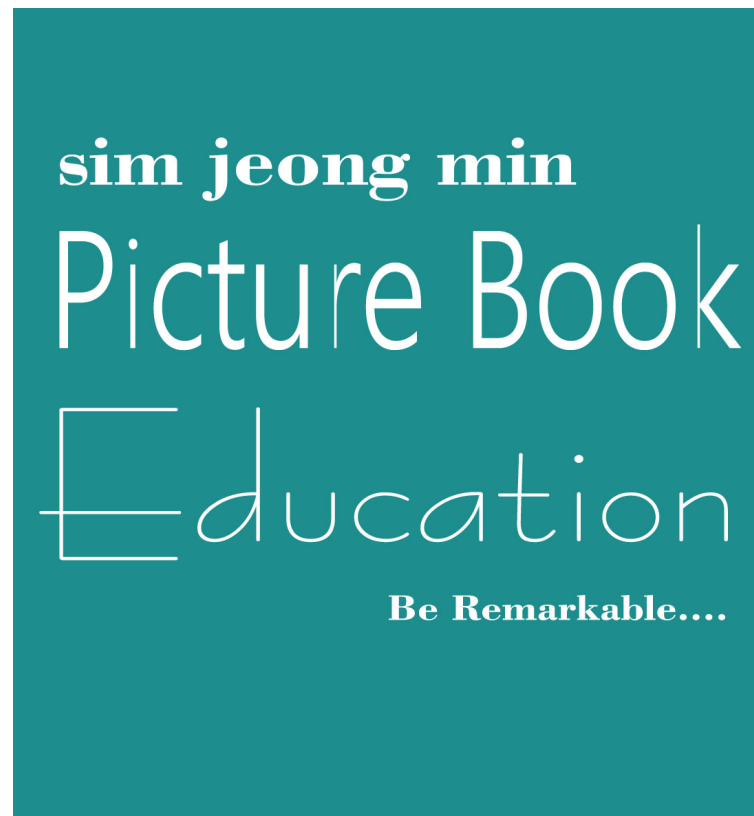


상호작용의 힘-
융합형 교육을 실현하자!



자료 출처: [하늘을 나는 그림책] 교육 개발 출판부 20140566

심정민 그림책 교육 연구소

융합이란 무엇일까요?

융합은 통합과 다릅니다. 유아교육은 통합교육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통합교육과정은 수업 주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제별 영역 수업을 진행하여 주제 통합의 교육과정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사과라는 주제로 미술영역의 그리기, 과학영역으로 맛보기, 언어 극놀이 영역으로 역할 놀이, 사과를 활용한 요리활동, 사과와 관련된 노래와 악기연주로 모든 영역을 하나의 주제로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과거의 통합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통합교육은 유아교육이 시작된 해부터 쭉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합교육은 사과의 겉모습과 사과라는 이름과 스토리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영역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니 현재 창의적인 사고나 비판적인 사고의 부족으로 창조적인 결과물들을 생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다보니 교육도 바뀝니다. 시대는 창조인재를 원하고 깊이있는 남과 다른 특별함으로 자율적 사고력과 논리적인 근거와 바탕이 되는 사고력을 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 학습에서 실현 불가능한 교육방식을 원하게 된것이죠. 미국의 STEAM교육은 유명합니다. 융합형 교육하면 STEAM을 말하죠.

융합형 교육, 융합형 사고력이라는 키워드가 우리나라 교육계에 키워드로 제시가 된건 3년전 부터입니다. 수많은 교수들이 융합형 교육의 외국 논문들을 뒤지고 뒤져 시대의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융합형교육의 실재를 어설픈게 풀어놓게 되었죠. 우리는 융합이 무슨말인지를 먼저 개인 스스로 학교 자체의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들이 스스로 고민했어야했으나 이것 또한 융합형교육을 너무도 어렵게 활동 중심으로 짜깁기하다보니 통합교육과 별다른 차이 없이 개념의 이해도 못한채 융합형 교육을 말로만 외치게 되었습니다.

통합교육과정은 각 영역별 교육으로 주제활동을 통합하자는 개념이라면 융합형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섞는것입니다. 하나의 활동들이 학습 주제 근처로 하나씩 하나씩 모여들어 주제에 대해 다양한 활동을 하자는 것이 통합교육이라면 융합형 교육은 학습 주제에 영역별 활동들이 하나씩 하나씩 물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간에 할 수 있는 영역활동들을 서로 이리저리 섞어서 하나의 지식을 얻고 새로운 지식과 사실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방식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사고력을 100% 원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미 미국 유럽등 선진국의 교육과정은 융합형 교육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미술이 만나서 하나의 주제를 좀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깊이보다는 다양성 접근의 교육,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수학과 언어가 만나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규칙성과 자율적 사고를 발현하는 것 또한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스토리텔링의 개념이며 수학스토리텔링 또한 융합형 사고력 교육의 기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융합형 교육은 수학적 사실에서 미술적 접근의 상호작용과 활동의 시도를 해보고 과학적 활동에서 언어적 감성 발휘 활동을 전개로 이끌어내는 방식 등... 융합형 교육은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얼마든지

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지식적으로든 창의적으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융합형 교육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전문가들의 개념 이해이며 사고력입니다.

개념이해는 위의 글을 보고 어느 정도 인지하셨을 것이고 융합형 사고를 교사와 원장인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하면서 우리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특별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장에게 더없이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상호작용한 실례를 부모에게 직접 말해주면 엄마들은 참 좋아합니다. 원장님과의 소통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 진정한 교육자 진정한 전문가임을 느끼게 되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 융합형 상호작용의 예를 통한 융합형 사고력 발휘 과정 이해하기

(원장님들이 직접 수업은 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마주칠 때마다 생활 속 소재들로 특별한 대화를 짧게 유도해보세요. 이것만 지속되더라도 아이의 평소에 생각들은 훨씬 더 깊어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찰력 또한 남달라지게 향상됩니다.)

① 오늘 날씨가 참 춥다. 눈이 내리면 온세상이 정말 하얀 솜이 뒤덮인듯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야, 그렇지 않아? 저게 다 솜이라고 생각해봐..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접근식의 대화)

그런데 밖을 나가면 너무 추워....

눈은 정말 차가운걸까? 그런데 눈은 왜 차가운걸까? 눈이 왜 차가운지 눈이 얼음으로 변할 수 도 있을까?

눈이 왜 차가운지, 눈이 얼음으로 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엄마, 아빠에게 물어봐.

(과학적 접근, 지식적 접근을 위한 호기심 유발)

② 신발이 참 예쁘더라 (멋있더라, 커보이더라 등등) 나두 어렸을 때 이런 비슷한 신발을 신었었지. 근데... 그 신발이 얼마나 좋은지 그 신발을 신으면 왠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 신발만 신으면 폴짝폴짝 뛰곤 했었어....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의적 발상의 이야기로 일상 소재에 관심 유도하기)

근데... 신발은 왜 신는걸까? 이런생각 해본적 있어? 한번도 없지? 신발은 과연 왜 신는걸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많은 이유가 있을거야...

(대화의 소재에 깊이 있는 탐구심을 자극하면서 평소에 탐구능력을 발휘하는 두뇌 회전을 생활화시키기)

③ 나는 돌맹이를 보면 자꾸 그림이 그리고 싶어지고 컵을 보면 자꾸 연필이나 꽃을 가득 채우고 싶어진다?

내가 나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독창적인것 같아.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생각을 참 잘 하는 훌륭한 사람이지~ 선생님이 보기엔 너두 웬지 그래보여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진 사실 중심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과 응용력을 자극 하는 대화-사실+아이디어의 창조 능력: 즉 융합의 실제)

근데 공원에 있는 수많은 돌맹이에 그림을 그려 놓아두면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네 생각은 어때?

(하나의 사물이 어느 공간에 개입되느냐에 따라 활용이 달라짐을 즉, 다양성을 생각하기 위한 유도,)

융합형 사고력의 기본 대화에는

감성, 창의성 자극은 물론

응용하고 확장하면서 다양하게 하나의 사물과 상황을 전혀 다른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려면

하나의 사물에 대한 특성, 특징, 속성을 깊이 있게 알아야합니다.

사물과 상황에 대한 알아가기는 정보와 지식을 의도적으로 학습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물에 관심도를 높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융합형 사고력 발휘의 첫걸음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물과 상황이더라도 깊이 있게 파헤치고 전혀 다른 연관성 없는 듯한 것과도 연관을 맺어 생각해보려는 자세입니다.

아이들과 잠깐 대화를 나눌 때도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교사 원장인 우리의 대화수준도 높아지며 어느순간 섬세한 대화를 하게 되면서 분석적이고 감성적인....

그러면서도 교육 전문가다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 상호작용은 습관입니다. 좋은 상호작용으로 습관을 들인다면 자신의 수업과 운영 능력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향상 되어 있을것이라 확신합니다.